



#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anuary 2026 Issue | Vol. 02

##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재무부(DoF), 면세 혜택 축소 시 부가가치세를 인하 가능성 시사  
— page 1
- FPI, 2026년 필리핀 제조업을 위한 핵심 전략 3가지 제시  
— page 2-3
- 필리핀 인플레이션, 2025년 1.7%...9년 만의 최저  
— page 3-4
- BIR-FIRB 자료 공유 협정, 상호 기록 및 인센티브 정보 접근 허용  
— page 4-5
- 11월 실업률 4.4%로 완화  
— page 5-6
- 항만청, 2026년 화물·여객 물동량 증가 예상  
— page 6-7
- 폐소 사상 최저치 기록...분석가들, 2026년 말까지 1달러당 61페소 전망  
— page 7

## 재무부(DoF), 면세 혜택 축소 시 부가가치세를 인하 가능성 시사

January 05, 2026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프레더릭 D. 고 재무장관은 재무부가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조치를 피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부가가치세(VAT)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조건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인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월요일 대통령궁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재무부(DoF)는 본질적으로 세수를 잠식하는 조치를 원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러나 물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를 인하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고 장관은 “가능하다(Pwede naman). 다만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임대, 물물교환 및 수입에 부과되는 12%의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국세청(BIR) 전체 세수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하원과 상원의 일부 의원들은 부가가치세를 1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르윈 T. 톨포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 제1552호는 부가가치세를 기존의 10%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바탕가스 지역구의 레안드로 안토니오 L. 레비스테 하원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같은 취지다.



고 장관은 “부가가치세(VAT) 효율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그것이 국가의 세수 감소를 의미한다면, 그에 상응해 지출도 함께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보고서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 필리핀의 각종 면세 및 영세율 제도의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확대 노인복지법(Expanded Senior Citizens Act)에 따라 12%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 대상 면세도 포함된다.

고 장관은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재정적자 관리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2026년까지 1조6,500억 페소(국내총생산의 5.3%)로 줄이고, 이후 2028년에는 1조5,500억 페소(4.3%)까지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무국(Bureau of the Treasury)에 따르면, 올해 첫 11개월간 세수는 4조1,500억 페소로 집계돼 전년 동기(4조1,000억 페소)를 웃돌았다.

같은 브리핑에서 라르프 G. 렉토 대통령실 비서실장 겸 전 재무장관은 정부가 조만간 예산 편성 지침(budget call)을 발표해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렉토 실장은 “곧 예산 편성 지침을 발표해 2027년 예산안 작성을 시작할 것이다. 다만 당분간은 2026년 예산 집행에 먼저 집중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한편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월요일 사상 최대 규모인 6조7,920억 페소의 2026년도 국가 예산안에 서명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1/05/722391/vat-rate-cut-possible-if-exemptions-curbed-dof/>

## FPI, 2026년 필리핀 제조업을 위한 핵심 전략 3가지 제시

January 06, 2026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Employees work in a production facility in Malabon City, the Philippines. Photographer: Veejay Villafranca/Bloomberg

필리핀산업연맹(FPI)에 따르면, 올해 필리핀 제조업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후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식품과 전자제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기계·화학 등 중간 수준의 복잡성을 지닌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엘리자베스 H. 리 FPI 회장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메시지는 분명하다. 12월의 반등은 회복탄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이자 향후 성장을 위한 기반”이라며 “이 같은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제조업 부문은 기후 교란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고, 현재의 식품·전자 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계와 화학과 같은 중간 복잡도 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 회장은 필리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025년 11월 4년 만의 최저치인 47.4에서 12월에는 50.2로 반등한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FPI 회장은 PMI가 계절 조정된 지표라는 점을 들어, 연말 성수기 효과가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12월의 반등은 크리스마스 재고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정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12월에 나타난 반등이 11월의 급격한 위축 이후 다수 제조업체가 ‘안정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필리핀의 제조업체와 생산자를 아우르는 단체인 FPI는 제조업 부문 개선이 여러 요인에 의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선, 11월 태풍으로 인해 “심각한 차질”을 빚었던 생산과 물류가 정상화되면서 공장 가동이 회복됐다.

FPI는 “신규 주문이 8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며 3개월간의 위축 국면이 종료됐고, 이는 국내 수요가 보다 견조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의 여파가 남아 있음에도 향후 생산 증가를 예상하며 구매 활동을 신중히 재개했다. 중요한 점은 이번 반등이 국내 수요 주도로 나타났다는 것이며, 2025년 말 기준 수출 주문은 여전히 부진했다”고 전했다.

PMI가 다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선 것을 리 회장이 ‘명확한 회복탄력성의 신호’라고 평가한 가운데, FPI 회장은 “이제 당면한 과제이자 기회는 혁신, 다각화, 회복탄력성에 투자해 이번 회복을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망과 관련해 FPI는 2026년 수출 증가가 보다 “강한 외부 순풍”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필리핀 전체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자 산업이 이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FPI는 이러한 수출 모멘텀이 현실화될 경우, PMI가 50 이상을 유지하며 제조업 전반의 확장세를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FPI는 2026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 교란과 공급망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 강화 ▲식품 가공(국내 점유율 약 절반)과 전자 산업(수출 점유율 약 절반)으로 양분된 현재 구조를 넘어서는 제조업 다각화 ▲기계, 화학, 목재 제품 등 ‘중간 복잡도 산업’ 육성을 통한 변동성 완화 및 고용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FPI는 필리핀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어 아세안 평균(22~27%)보다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기업 단체는 “이 같은 저조한 성과는 제조업을 국가 성장의 강력한 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산업 역량을 다각화하고 심화하는 타탁 피노이(Tatak Pinoy) 개혁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FPI는 공화국법 제11981호에 따른 필리핀의 새로운 산업 전략이자 로드맵인 ‘타탁 피노이’와 같은 정책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FPI는 “혁신, 기술, 산업 고도화에 투자함으로써 타탁 피노이는 필리핀 제조업의 복잡성과 경쟁력을 높여, 경제 성장이 단순히 경기적 변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이고 자랑스러운 필리핀산 성장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Cont. page 3]

## FPI, 2026년 필리핀 제조업을 위한 핵심 전략 3가지 제시

[Cont. from page 2]

리 회장은 12월의 반등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수요가 안정될 때 필리핀 제조업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 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우리는 2026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개혁의 확대와 시행, 그리고 타탁 피노이(Tatak Pinoy)와 같은 장기적 회복력 구축 이니셔티브의 강화에 힘입어 필리핀 제조업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Image credits: VEEJAY VILLAFRANCA/BLOOMBERG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1/06/fpi-lists-3-crucial-strategies-for-phl-manufacturing-in-2026/>

## 필리핀 인플레이션, 2025년 1.7%...9년 만의 최저

January 07, 2026 | Nyah Genelle C. De Leon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통계청(PSA)은 화요일, 연말 태풍과 연말 수요로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5년 말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이 소폭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12월 인플레이션은 1.8%로 집계돼 11월의 1.5%보다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억제된 수준을 유지했으며, 중앙은행인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12~2% 예상 범위 내에 머물렀다.

이는 또한 이니콰이어(Inquirer)가 조사한 11명의 경제학자 중간 전망치 1.5%를 웃도는 수치다.

이 결과로 2025년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1.7%를 기록하며 2016년 1.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이는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2~4%를 10개월 연속 하회한 기록이기도 하다.

### 식품 가격 상승

지난달 식품 가격 하락세를 뒤집고 12월에는 가격이 상승한 것은 연말 태풍과 연휴 수요가 원인이라고 PSA 부차관 겸 국가통계청장 데니스 마파(Dennis Mapa)가 밝혔다.

소비자 물가에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식품 및 비알코올 음료 가격은 12월에 1.4% 상승했다. 이는 해당 달 전체 인플레이션 압력의 97.5%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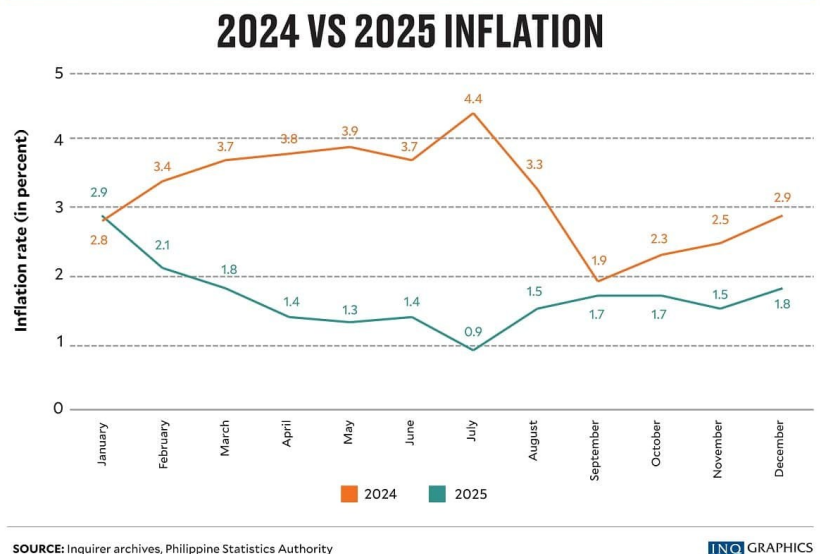
마파 통계청장은 쌀 가격은 계속 하락했지만, 태풍 ‘우완(Uwan)’으로 인한 농장 피해로 채소 가격이 12월 4%에서 11.6%로 급등하며 쌀 가격 하락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연말 수요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여했으며, 고기, 밀가루, 빵 및 제과류 가격 상승이 관찰됐다.

Chinabank 리서치의 경제학자들은 2026년 인플레이션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12월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충격이 없는 한, 향후 가격 압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안정적 인플레이션 전망은 BSP가 정책 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경제를 보다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것” 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한편, BSP는 지난 12월 11일 제3분기 경기 둔화, 특히 홍수 통제 스캔들 과급 영향 확대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4.5%로 조정할 바 있다. [Cont. page 4]



## 필리핀 인플레이션, 2025년 1.7%...9년 만의 최저

[Cont. from page 3]

### 구매력

필리핀개발연구소(PIDS) 수석연구원 존 파울로 리베라(John Paolo Rivera)는 올해 가격 압력은 전반적으로 억제됐지만, 태풍 관련 가격 급등이 4분기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낮은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은 가게 구매력을 뒷받침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소득 손실과 활동 차질과 맞물려 소비를 둔화시키고 4분기 성장 모멘텀을 일부 약화시킬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리베라는 이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제약 요인은 아니며, 4분기에는 가격뿐 아니라 기후 충격과 정책 집행 문제가 더 큰 변수” 라고 덧붙였다.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반영해, Reyes Tacandong & Co. 수석 고문 조나단 라벨라스(Jonathan Ravelas)는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였지만, 12월의 가격 급등은 단기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영향은 혼재돼 있다. 단기적으로는 식품 가격 상승이 지갑을 압박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은 소비를 지지하고 경제 회복력을 유지한다. 다만 인플레이션 상황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고 말했다.

한편 경제계획개발부(DepDev)는 지속적인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경제가 가격 압력에 견디며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 모멘텀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 DepDev 장관은 “이 모멘텀을 바탕으로 정부는 신중한 재정·통화 조정과 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해 인플레이션 하락세를 유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재무부(DOF)도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정부의 “강력하고 조정된 대응” 덕분이라며, 2025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4.2% 세계 인플레이션률보다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프레더릭 고(Frederick Go)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인플레이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필리핀 가정을 가격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67690/philippine-2025-inflation-slows-to-1-7-a-9-yr-low>

## BIR-FIRB 자료 공유 협정, 상호 기록 및 인센티브 정보 접근 허용

January 06, 2026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국세청(BIR)과 재정 인센티브 검토위원회(FIRB)는 지난해 체결한 자료 공유 협정이 납세자 기록과 세금 인센티브 정보를 상호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BIR의 마틴 R. 멘도사(Martin R. Mendoza) 청장은 화요일 BIR과 FIRB 간 자료 공유 협정 전문을 공개했다.

이 협정은 지난해 10월 27일 체결됐다.

멘도사 청장은 “이번 협정으로 FIRB 사무국은 BIR 시스템에서 납세자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BIR은 FIRMS(Fiscal Incentives Registration and Monitoring System) 플랫폼을 통해 등록 기업의 세금 인센티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멘도사 청장은 또한 이번 협정이 2012년 데이터 보호법(Data Privacy Act)과 국가개인정보위원회(National Privacy Commission) 통보 제16-02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를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협정에 따라 FIRB 사무국은 BIR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현장 및 온라인 접근을 통해 납세자 등록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BIR은 FIRB 사무국과 납세자 등록 정보를 공유하며, 공유 범위는 등록된 이름과 납세자 식별 번호(TIN)로 제한된다.

[Cont. page 5]

## BIR-FIRB 자료 공유 협정, 상호 기록 및 인센티브 정보 접근 허용

[Cont. from page 4]

한편, FIRB 사무국은 FIRMS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등록 기업 마스터 리스트와 BIR에 제출된 세금 인센티브 자격 증명서(Certificate of Entitlement to Tax Incentives)를 검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업 단위 연간 세금 인센티브 보고서(Annual Tax Incentives Report)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다.

협정 유효 기간은 서명일로부터 5년이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어느 한 쪽이 사전에 종료할 수 있으나, 만료 전 또는 만료 시점에 새로운 자료 공유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1/06/722663/bir-firb-data-sharing-deal-grants-reciprocal-access-to-tax-records-incentives-information/>

## 11월 실업률 4.4%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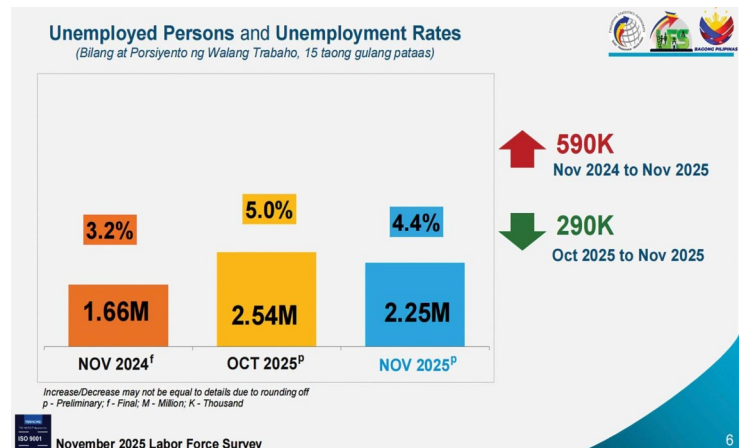
January 08, 2026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 노동시장 안정세, 여전히 취약

2025년 11월 필리핀의 실업률은 10월 5.0%에서 4.4%로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3.2%보다는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가들이 ‘안정화되었으나 여전히 취약한 노동시장’이라고 평가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분석가들은 필리핀 노동시장이 여전히 기후 충격, 경제 성장 둔화, 민간 투자 흐름의 불균형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필리핀 통계청(PSA)은 수요일 발표한 최신 노동력 조사 결과, 11월 실업자가 225만 명으로 집계돼 10월의 254만 명에서 감소했지만, 1년 전 기록된 166만 명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태풍 피해 산업

국가통계청장 클레어 데니스 S. 마파(Claire Dennis S. Mapa)는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심각한 태풍의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풍으로 인해 특히 관광, 숙박 서비스, 소매업, 농업 등에서 경제 활동이 차질을 빚었다.

마파 통계청장은 날씨로 인한 혼란이 노동 강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며,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2025년 10월 41.3시간, 2024년 11월 41.4시간에서 11월에는 40.4시간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제계획개발부(DEPDev)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장관은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하위 산업을 지목했다.

그는 성명에서 “태풍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된 하위 산업에서 일자리 손실이 컸으며, 숙박·음식 서비스,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어업 및 양식업 등에서 87만3천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발리사칸 장관은 정부가 기업들이 사업 연속성 및 회복력 계획(Business Continuity and Resiliency Plans)을 개발하도록 지원해, 심각한 기상 상황에서도 경제 활동 차질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월 날씨 개선

리잘 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는 12월 2025년 보고서가 발표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말 판매 증가가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인력 채용과 경제 활동 확대를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Cont. page 6]



## 11월 실업률 4.4%로 완화

January 04, 2026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리카포트 경제학자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여름철까지 날씨가 개선되면 고용 지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추가 경기 지출 프로그램이 고용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부패 방지 조치와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보다 광범위한 거버넌스 개혁과 연계될 경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 5,152만 노동력

11월 노동력 참가율은 64.0%로 10월 63.6%보다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15세 이상 필리핀인 총 노동력은 5,15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1월 기록된 64.6%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월간 기준으로 고용은 개선됐다. 고용률은 10월 95.0%에서 95.6%로 상승했으나, 전년 동기 96.8%보다는 낮았다. 고용자 수는 10월 4,862만 명에서 11월 4,926만 명으로 증가했다.

### 서비스업 · 농업 중심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62.1%, 농업 20.0%, 산업 17.9% 순이었다.

### 취업 불완전 문제 완화

11월 시간제 · 추가 근로 희망자 비율(취업 불완전율)은 10월 12.0%에서 10.4%로 하락했으며, 이는 추가 근로를 원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는 511만 명에 해당한다. 전년 동기 10.8%보다는 낮은 수치다.

청년층(15~24세) 노동력 참가율은 전년 90.6%에서 88.3%로 떨어졌으며, 52만8천 명의 청년이 추가 근로를 위해 청년층 취업 불완전율은 9.4%를 기록했다.

### 부분적 회복

필리핀개발연구소(PIDS) 연구원 존 파올로 리베라(John Paolo Rivera)는 11월 자료가 10월 충격 이후 일부 계절적 활동과 태풍 영향 산업의 회복으로 부분적 개선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실업률이 여전히 전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경제 성장 둔화, 기후 교란, 신중한 채용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 지적했다.

리베라는 또한 “취업 불완전율 하락은 고무적이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참여 감소는 일자리 질과 안정성이 여전히 주요 과제를 보여준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노동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아직 강화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며, “지속적인 개선은 단기 회복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빠른 경제 성장, 재난에 강한 일자리, 민간 투자 확대에 달려 있다” 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nov-unemployment-eases-to-4-4/](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nov-unemployment-eases-to-4-4/)

## 항만청, 2026년 화물 · 여객 물동량 증가 예상

January 06, 2026 | Ashley Erika O. Jose | BusinessWorld



ICTSL.COM

필리핀항만청(PPA)은 항만 효율성 투자에 힘입어 올해 화물과 여객 물동량이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PPA 제너럴 매니저 제이 다니엘 R. 산티아고(Jay Daniel R. Santiago)는 비즈니스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망은 “항만 현대화, 운영 효율성, 서비스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 투자” 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에는 PPA가 화물 물동량이 4.03% 증가한 3억2,094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주로 해외 화물 수송 증가에 힘입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7]

## 항만청, 2026년 화물·여객 물동량 증가 예상

[Cont. from page 6]

필리핀항만청(PPA)은 2025년 해외 화물 물동량이 4.28% 증가한 2억2,773만 톤, 국내 화물은 3.61% 증가한 1억1,82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산티아고 제너럴 매니저는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높은 항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고 말했다.

컨테이너 처리량은 3.94% 증가한 888만 TEU(20피트 컨테이너 기준)로 예상된다.

올해 여객 수송량은 5.78% 증가한 8,726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5년 첫 11개월 동안 기록한 8,249만 명 대비 증가한 수치다.

PPA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기간 동안 628만 명의 여객을 기록하며 1974년 설립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에는 약 12개의 항만이 민영화될 예정이라고 PPA는 덧붙였다.

PPA는 2024년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2028년까지 최대 160억 페소를 배정했으며, 이 자금은 항만 효율성과 처리 능력 향상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14개의 주요 사업 프로젝트가 완료될 예정이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1/07/722942/ports-regulator-forecasts-stronger-cargo-passenger-volumes-in-2026/>

## 페소 사상 최저치 기록…분석가들, 2026년 말까지 1달러당 61페소 전망

January 07, 2026 | Derco Rosal | Manila Bulletin

페소가 신기록 사상 최저치로 급락했다. 1월 7일 수요일 필리핀 페소는 미 달러화 대비 ₱59.355로 마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날 종가 ₱59.21을 넘어선 수치다.

이 같은 하락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신흥시장 자산에서 매도세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페소는 장중 한때 ₱59.38까지 떨어졌다가 잠시 ₱59.20 수준으로 반등했지만,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 급락세는 미국의 대(對)베네수엘라 군사 공격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친 영향도 일부 반영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선호하며 신흥국 통화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반응’ \*\*으로 해석했다. Reyes Tacandong & Co.의 수석 고문 조나단 라벨라스는 페소의 급격한 약세를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반사적 위험회피 반응(knee-jerk, risk-off reaction)” 이라고 설명했다.

라벨라스는 심리적 지지선이 깨진 만큼 단기적으로는 ₱59.50 수준 테스트가 예상되며, 올해안에 ₱60을 돌파하고 2026년 말에는 ₱61까지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관세 변화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리잘 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리카포트도 미국-베네수엘라 갈등이 현재 페소 약세의 주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페소가 단기적으로 ₱60선 돌파는 피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페소 약세는 아시아 전반적인 통화 흐름과 맞물린 현상이다. MUFG 글로벌 마켓 리서치의 수석 통화 분석가 로이드 찬(Lloyd Chan)은 2026년 초 이후 필리핀 페소, 인도네시아 루피아, 한국 원화가 지역 동료 통화 대비 약세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찬 분석가는 이에 비해 말레이시아 링깃, 싱가포르 달러, 태국 바트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기관 전망은 점점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은행 & 트러스트(Metrobank)는 환율이 올해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투자자 심리 약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Metrobank 분석가들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강세 달러의 반동이 페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미국 연준(Fed)과 필리핀 중앙은행 간 금리 차이에서 오는 잠재적 혜택을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ource: <https://mb.com.ph/2026/01/07/peso-hits-new-all-time-low-analysts-warn-of-61-slump-by-end-2026>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SGV**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Will you  
shape the  
future**

**or be  
shaped  
by it?**

With our spectrum of services, skills  
and ecosystems, SGV teams help  
create new value across sectors.  
[sgv.ph](https://sgv.ph)

■ ■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forABetterPhilippines**

© 2025 SyCip Gorres Velayo & Co. All Rights Reserved.